



묘향사 7일 '21세기 불화' 봉안 법회 경북 칠곡 묘향사(주지 혜민)는 한국화가 문봉선(충익대 동양화) 교수가 그린 '21세기형 불화(佛畵)'를 설치하고 12월 7일 봉안법회를 가졌다. 벽화 속에는 티베트 수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선재동자, 노트북을 하는 부처님 등이 들어있다. 지난 2년간 묘향사에서 한국화가 문봉선 씨가 조성한 이번 불화는 만물이 불성이 있음을 형상화 하고자 한 의도라고 밝혔다. 가연숙 기자

불자의원들, 입법활동으로 불법 외호

불교규제법령 21건 발의...불교관련법안 토론회 잇달아

이른바 '선(禪)의 황금시대'인 당·송대에 많은 거사들이 불법 외호에 일조했다면, 문화대혁명(1967~1977)의 법난(法難)속에서 꺼져가는 법등(法燈)을 되살린 이가 조박초(趙朴初) 거사다. 중국불교협회 설립한 그는 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이끈 등소평의 혁명동지로서 전통사찰을 복원하고 불학원과 선원을 개설하는 등 중국불교를 기사화해 생신시킨 공로자다.

이처럼 불법을 외호하고 중흥시키는 재가거사의 역할은 실로 엄청나다. 오늘날 정교분리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불자 정치인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불교가 종교차별의 희생양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슈가 된 공직자 종교편향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늦었지만 종교편향을 방지하고 불교를 외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불자 국회의원 모임은 민주당 연동회(회장 최문순)다. 연동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통문화 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공무원 종교등록법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 불교관련 토론회다.

1부 전통불교문화 진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강창일 의원의 사회로 조계종 법무위원 정석원 변호사의 발제와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 교장, 윤남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공원녹지법, 농지법 등 불교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규제현황과 과제도 점검한다.

2부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안 토론회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의 사회로 조계종 법륜자문

위원 김형남 변호사의 발제와 박선속 의원, 정지석 기독교평화연구원 소장 등의 토론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입법 방안 등을 모색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될 공직자종교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시설 투표소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현재 민주당 연동회와 한나라당 불자회 회원을 포함한 국회 정각회(회장 최병국) 소속 불자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불교관련 법를 개정안은 모두 8건. 불교규제 국가법령가운데 건축법, 토지이용규제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장사법 등 8건의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고 매개문화재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총 21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정각회 소속 의원 59명(한나라당 43명, 민주당 11명, 자유선진당 3명)의 협력과 지원으로 진행중인 8개 법

를 개정안과 4개 종교차별금지법안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9일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까지 대부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무려 21건에 달하는 불교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원 및 정부에 의해 발의된 것은 불교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록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불자의원들의 의욕은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물론, 의원불자모임의 활성화는 불교계의 협의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법안이 여야간 힘겨루기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야를 설득하고 입시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때보다 활발한 불자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인제양성을 소홀히 한 불교계의 업보를 해소하고 새로운 불교 중흥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생명평화탁발순례단

5년만에 대회향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이 12월 13일 서울역에서 보신각까지의 순례를 마지막으로 5년 간의 긴 여정을 회향한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회향식을 거행한다.

생명평화탁발순례는 우리사회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2004년 3월 1일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해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각지 3만여 길을 걸어왔다.

순례는 아침 100배 절명상으로 시작해 묵언경기와 명상, 다시 절명상 100배로 진행됐다. 순례후에는 사회단체, 종교인, 관청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대화로 소통했다. 10대에서 60대까지 10여 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이 구간·지역참여자를 비롯해 만난 사람은 8만여명에 이른다.

순례단은 회향식 후 12월 14일 첫 순례가 시작된 지리산 노고단으로 이동해 생명평화기원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02)723-1950 노덕현 기자

BBS, 교계 최초 IPTV

12월 2일 IPTV 개막

교계 최초로 불교방송이 불교 방송 콘텐츠를 IPTV로 송출했다.

불교방송이 사상 영답은 12월 2일 오전 5시부터 KT의 실시간 IPTV 서비스 '메가TV 라이브'에 첫 전파를 발사하며 본격적인 IPTV 시대를 열었다.

11월 11일 KT의 불교 채널로 단독 선정된 불교방송은 채널번호 550번을 부여받아 2일부터 24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불교방송 관계자는 "다른 IPTV인 myLGt에서도 방송하는 등 IPTV 채널 수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TV로 제작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영상 콘텐츠를 확보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월간 '불교와 문화' 통권 100호 발간

'과연, 한국 불교에 재가불교가 있기는 한가' 특집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발행하는 대중 포교지인 월간 <불교와 문화>가 12월호로 100호가 됐다.

<불교와 문화>는 100호 특집으로 '과연, 한국 불교에 재가 불교가 있기는 한가'를 마련해 출. 재가자의 입장에서 오늘날 재가불교의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 밖에 △집중인터뷰 작가 고은을 만나다 △아! 불교와 문화 사진으로 보는 월간 <불교와 문화> 1호~100호 △특별기획 상생의 삶, 친환경운동 어디까지 왔나 △현장 속으로 길벗 특별 초청 강연, 법륜 스님 '즉문즉설' 등이 수록됐다.

문화를 통한 포교를 위해 지난 1992년 계간 <다보>로 창간된 <불교와 문화>는 이후 격월간과 월간지로 거듭나면서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찾아 대중들에게 자리매김했



다. 고영민 편집장은 "100호 발간을 기점으로 '불교'와 '문화'를 통한 차별화된 문화잡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독자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교와 문화> 100호 발간 축하 음악회가 12월 24일 오후 2시 서울 다보원(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릴 계획이다. 음악회는 제6회 대원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02)719-2606 이나은 기자

"근린공원 지정이 수행환경 망쳤다"

봉은사, 공청회 통해 정비계획 발표



봉은사 가람정비계획 조감도.

불교계의 환경부가 사찰규제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봉은사가 12월 4일 가람정비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가람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가람정비 공청회를 통해 봉은사는 1977년 봉은근린공원으로 지정돼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게 변한 사찰모습을 조명, 해결점을 모색했다.

공청회에서는 김형남 변호사가 '봉은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김용미 건축가(금성건축 대표)가 '봉은사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사업'을 발표했으며 현고 스님(원각사 회주), 이상태 교수(성균관대), 최기수 교수(서울시립대), 염형민 사장(남양주시 도시개발공사)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1214년 창건된 봉은사는 매년 90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찾는 강남의 대표사찰이지만 '공원관리법'에 의해 가건물 및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1939년 대화재 이후 근래 들어 복원, 건축된 시설은 모

두 공원건물이거나 불법건물이다.

현재 봉은사 정문인 진여문이 공원문으로 등록됐고 요사채, 공양간 등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불법건물이다.

봉은사 가람정비계획은 총 1000억원 예산 규모로 전통사찰영역과 현대사찰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됐

다. 전통사찰영역은 현 봉은사 법원루-대웅전 등 북쪽지역으로 1910년대 조선 후기 가람배치를 기준으로 전통사찰 분위기를 살려 복원될 예정이다. 현대사찰영역은 현 봉은사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지하5층 속에 1500여 명 수용가능한 대법당과 템플스테이관 신도회, 세미나실, 독서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iN 마미로봇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 시 • 성지 순례 산행 시 • 장시간 공부·운전·운동 피곤 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아마따茶로 성불 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 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 팔리어로 '길로' (달고 깨끗한 이슬)를 뜻합니다.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처: 유기마켓(주) 농협 601139-51-006748 국민 580301-04-091374

마테(Yerba Mate) 피라과아와 아르헨티나의 원주민 '과리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리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